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세션 1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답하기 어려운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다룰 때 이러한 의문들이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과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설령 이 서신이 베드로가 썼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응답으로 서신의 상황과 메시지만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본문을 해석하고 지속적인 권면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더 중요한 토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유다의 경고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각색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지만, 베드로후서는 또한 매우 다른 종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팔레스타인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반면, 베드로후서는 신약성서 중 가장 헬레니즘화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서문은 그리스 도시의 후원자 비문처럼 읽힙니다. 결론은 기원전 4세기 후반과 3세기 초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설교자들과의 토론처럼 읽힙니다. 베드로후서는 청중들의 매우 특별한 도전을 다루면서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우리 삶의 두 가지 주요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과거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심판으로의 재림, 그리고 의가 거하는 왕국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구속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우리도 안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는 혁신적인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2장 1절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초기 징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듯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멸망의 당파를 몰래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며, 스스로에게 임박한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침입자들에 대한 주제와 그들이 가지고 온 수치스러운 인격과 불경건한 행실을 강조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과 메시지의 매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 또한 강조됩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편향된 시각은 3장 3절과 4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멸시하며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회의론자의 언어에 대한 저자의 묘사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치유하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는, 인간 역사의 끝없는 흐름에 대한 단순한 진술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곧, 어쩌면 제자들과 동료들이 살아 있는 동안이라도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충만하게 가져오실 것이라는 초기 기독교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서기 64년 무렵, 예수님의 사도들과 첫 제자들 세대의 대부분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21세기의 기독교 역사에서 심판과 재림이 곧 또는 신속하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종종 종말론적 희망을 버리고 기독교인의 기대와 현세에 대한 행동을, 사실상 끝없는 세상으로 재구성하도록 촉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자가 반대하는 교사들이 그러한 주장을 처음 펼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시대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주님의 언젠가에 대한 증거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사도들의 증거와 성경적 증거를 모두 옹호합니다.

이 경쟁적인 스승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더욱 계몽된 기독교, 즉 유대교의 종말론적 관념에서 벗어난 기독교를 육성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적 관념은 그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편협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의 회의주의는 스토아주의, 중기 플라톤주의와 더불어 로마 시대 철학의 세 주요 흐름 중 하나였던 에피쿠로스주의의 회의주의와 종종 비교되어 왔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최고선을 아타락시아, 즉 평온한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불안, 그리고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다른 자극들을 제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자기 감시와 수양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신으로서 스스로 최고의 선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간적인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에피쿠로스를 인용했듯이, 축복받고 영원한 존재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른 존재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분노나 편애의 감정에서 자유롭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거나 고귀하게 행동한 자들을 호의와 보상으로 대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악인들이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동안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신의 섭리와 심판에 대한 믿음이 단순한 미신에 불과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목표는 사람들을 종교의 공포라는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인간 경험에서 불안과 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가져온 불행하고도 다소 빈번한 부작용은 관습적인 도덕을 떨쳐버리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쾌락에 폭 빠지는 경향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자신도 쾌락을 자신의 철학의 산물로 언급했지만, 그 자신은 쾌락을 엄격하게 평온함으로 여겼으며, 뻔뻔스러운 방종은 사람의 평온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대다수 학자들은 베드로후서에서 반대하는 계몽된 경쟁 교사들을 현재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질문,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는 저자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신의 심판, 특히 미래의 심판에 대한 부정을 수반하는데, 이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독교 복음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교사들을 에피쿠로스 학파의 명백한 목표인 자유를 약속하는 존재로 묘사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의 노예이며, 이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잘못된 실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날과 새 창조를 위해 현재 우주가 해체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약속을 확증하는 데 전념합니다. 또한 니케아 신경에 담겨질 확신에 대한 경쟁 교사의 반론에 답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갱신된 우주에서 영원이 달려 있는 심판의 날을 긍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정은 윤리적 실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자가 2장 전반에 걸쳐 경쟁 교사들의 윤리적 방종을 질책하고, 3장에서 청중에게 의와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서두를 다시 살펴보면, 저자가 이미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니실 영광을 예언적으로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변형 사건 자체는 경쟁 교사들이 제기한 의심에 맞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1장의 서두는 그리스도인 삶의 윤리적 의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진 우리는 경쟁 교사들이 실천하고 가르친 윤리적 궤적에 맞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시켜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어는 서두에 나오는 시므온 베드로입니다. 시므온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였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쓴 본문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네로 통치의 마지막 몇 년 동안,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울, 야고보, 유다, 그리고 선견자 요한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에는 없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주장을 함축합니다. 노예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성과 관련하여 비하된 지위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신성의 대표자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영예를 주장하는 의미도 내포했습니다. 사도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된 사절로서

행동하는 동시에, 자신이 대표하는 분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의 여러 특징은 독자들에게 이 서신이 시므온 베드로의 마음이나 입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잠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신의 간결하고 심지어 무미건조한 그리스어 문체는 한때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가 생애 후반기에 그리스어권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든 간에 말입니다. 또한 이 문체는 베드로전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미 그 갈릴리 어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서신입니다.

둘째, 일부 사상은 특히 그리스적이고 유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구원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고 욕망으로 인해 세상에 존재하는 부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매우 그리스적인 개념입니다. 형벌의 장소는 타르타로스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반적인 하데스나 스올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이며, 그리스 신화의 형벌 영역을 지칭하는 매우 그리스적인 용어입니다.

셋째, 베드로후서에는 유대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는 베드로전서에 그러한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4세기 초에 저술한 유세비우스가 증언하듯, 이 서신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는 인정받는 서신 하나를 남겼으며, 의심받고 있으므로 두 번째 서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세기에 제롬은 이 서신이 베드로에게 기록되었다고 보는 데 있어 문체적, 개념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으로 남아 있는 두 서신 또한 문체, 성격, 그리고 단어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며, 이를 통해 그가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롬이 제시한 해결책은 서신과 사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저작 이론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역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비서 보조가 그 편지에 구체적인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본질은 분명 페트린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표현은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장 칼뱅 역시 베드로후서 주석 서문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베드로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를 알 수 없습니다.

칼빈이 이 문제에 제기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전제는 주목할 만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허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기 후반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그의 관점에 공감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칼빈의 결론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서신과 사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을 맡겼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언어학자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매개된 것입니다. 제롬처럼 칼빈 또한 이 서신을 사도에게 전반적으로 귀속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매개의 광범위함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표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와 본문 사이의 어느 정도의 중재는 고대 세계에서, 심지어 신약성서에서도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이나 비서의 도움을 받아 기록된 바울 서신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 작성에 관여한 데르티우스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문체적 차이는 제롬과 칼뱅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이 눈에 띄지 않는 저자가 최종 결과물의 형성에 얼마나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후서의 구성에 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신을 쓰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서신의 문체와 표현, 그리고 그 내용은 베드로가 신뢰하는 동료인 데르티우스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지지합니다. 이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서신을 써서 사도의 권위, 그리고 아마도 그의 가르침을 베드로 사후 발생한 문제들에 적용하고, 베드로와 그의 사도 동료들이 물려준 유산을 위협하는 경쟁 교사들에 맞서 사도적 전통을 수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베드로후서는 가명, 즉 저자가 허위로 기재된 작품입니다. 이러한 학자들이 흔히 지적하는 맥락적 요소 중 하나는 구약성서라는 장르의 존재입니다. 이 구약성서는 과거의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이 임종 시 후손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종 그 인물의 삶의 일화에 대한 개인적인 회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종종 투시력의 시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르의 많은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열두 족장의 유언서, 아브라함의 유언서, 모세의 유언서, 그리고 욥의 유언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와 이 유언서들 사이에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특히 116-18절에서 변형에 대한 회상을 담았습니다. 베드로는 112-15절에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그 도덕적 교훈의 내용은 서신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넷째, 현재와 미래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적인 개입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물론 서신으로 표현됩니다. 사도적 소통의 전형적인 형태인 서신이 사도의 유언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명임을 시사하는 다른 잠재적 증거로는 첫째, 회의론자의 다음과 같은 관찰이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조롱자들이 한 것으로 여겨지는 회의적인 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도들이 죽은 후, 즉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실패한 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기 직전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묵시록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2장과 3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예언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회중이나 회중에게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학자들은 이것이 가명 저자가 수십 년 전의 진정한 사도적 예언과 훈계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저자와 독자 모두 앞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자가 대대적인 편집 끝에 유다서의 내용을 삽입한 것은 베드로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사도 이후 시대의 저자와 더 잘 어울린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완전히 베드로의 저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사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리스어의 문체와 어휘가 베드로의 저작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 가능성을 단호히 배제하기 전에, 고대 세계에서 가명 저술은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기만 행위로, 다른 경우에는 존경받는 인물의 가르침을 계승하거나 보존하려는 진심 어린 헌사로 이해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직접 저술한 것은 없지만, 고대 서적 목록에는 그의 이름을 딴 수백 개의 제목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완전한 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을 수집하고 기록하여 자신의 이름이 아닌 스승의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비록 스승에게서 비롯된 내용 그대로를 스승에게 돌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들이 중재하여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명 저자설은 베드로후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큰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가명을 용인된 관행으로 허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2세기와 3세기에 걸쳐 이단적인 신앙을 조장하고 이를 요한, 야고보, 도마의 비밀 가르침으로 내세우기 위해 가명을 널리 사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가명으로 기록된 것으로 밝혀지면 거부당했습니다. 따라서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와 같은 서신을 정경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사도들의 저작물로서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것을 수반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본문의 내용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실제로 그 특정 사도가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본문이 사도적 증거로서 진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증거의 절반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증거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서신이 사도적 내용, 즉 변형 이야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자들의 구원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적 의도, 즉 유다서의 구절을 빌려,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에 독자들을 집중시키려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의 저작을 확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문체와 내용의 일부를 베드로가 유일한 저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롬과 칼빈은 베드로의 저작을 기본적으로 확증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적어도 베드로의 신뢰할 만한 동료를 통해 상당히 중개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문은 전형적인 서신 인사말, 즉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로 시작하며, 초기 기독교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확장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동등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작 인사말은 청중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아니, 사실상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청중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낼 뿐입니다.

3장 서두에서 저자는 베드로의 이전 서신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나는 여러분의 진심을 일깨워 거룩한 선지자들이 전에 전한 말씀과 주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전하신 계명을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앞선 서신을 베드로전서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도 앞선 서신이 언급된 소아시아 서부의 한 지역 또는 그 이상의 속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로마 속주인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에 있는 속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의 독자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관성에 얼마나 의존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30년 이상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두 서신만 썼다는 가정 하에, 만약 그가 실제로 두 서신을 모두 썼다면, 두 서신만 썼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주요 사도적 인물이 후세에 전해지는 중요한 서신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언급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과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눈물의 서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언급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서신만 거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에베소서과 아니거나 우리의 에베소서에 통합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저자가

바울 서신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 것도 터키 서부 지역 독자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만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떨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 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관계처럼 베드로후서의 독자와 베드로전서의 독자를 동일시하는 데 너무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1장 2절에 나오는 독자에 대한 묘사는 우리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청중에 대한 호의와 존중을 표현하는데, 이는 청중이 이어지는 모든 단어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끕니다. 또한 청중이 창시자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현재의 물질적 창조물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존재의 무대가 아니라는 확신이 포함됩니다. 이는 청중에게 처음에 받아들였던 신앙이 회중이나 설교 대상 회중에 침투한 회의론자들의 혁신에 맞서 싸울 만큼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처음부터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서두는 예수의 신성을 일찍부터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법적 구조로 언급하는 방식은 저자가 단일한 존재를 지칭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시나이 사본의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문은 아마도 서기관이 이례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통적인 표현인 "우리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불편함을 느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본문은 서기관의 수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더 쉬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서신에서처럼, 단순한 인사말 대신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모든 초기 기독교 담론의 핵심이지만, 1장 3절에서 1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서신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점을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철학적으로 존중받을 만하면서도 여전히 정통적인 신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저자의 손에서 정통 기독교는 오늘날의 어떤 대중 철학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며, 비판을 견뎌내고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경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주요 교리를 희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자가 이러한 관점에서 전진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리스도인 제자도를 널리 인정받는 덕목의 삶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인정함으로써 생명과 경건을 위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 약속들을 통해 여러분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경계 없는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므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데 온 힘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자는 도시의 후원자들을 기리기 위한 결의를 선포하는 비문과 같은 언어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후원자들이 사는 도시 곳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비문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저자가 찬양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으니, 이 약속들을 통해 여러분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자는 1장 4절에서 구원을 매우 그리스적인 용어로 개념화합니다. 구원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불멸, 도덕적 완전함, 그리고 완전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구원은 동시에 물질 세계에 내재된 부패나 쇠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쇠퇴를 욕망이 인간 경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자는 사도적 신앙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불평과 정반대로, 청중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그리스-로마 윤리 철학의 언어와 사상을 서두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받은 신앙은 참으로 계몽적이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찬양되는 최고의 이상과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미국적 맥락에서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반문화적인 일입니다.

이 삶의 좋은 것들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측면에서, 심지어 사회에서 자라나는 또래들이 위대한 것을 정의하듯 이 삶에서 위대한 것을 성취하라는 측면에서도, 큰 꿈을 꾸라는 온갖 격려를 받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 새 차, 새 약, 새 음료, 새 간식, 새 식당, 새 해변 휴양지, 새 영화, 새 컴퓨터, 새 주방 수납장, 새 차 등 새 욕망을 자극하려는 온갖 유혹에 직면합니다. 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사는 세상에서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자는 먼 문화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욕망과 그것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고 의심스러웠던 문화권에서 말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통틀어 윤리의 상투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덕 있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을 지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충동, 욕망, 감정에 자유롭게 얽매이는 것은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미덕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윤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엄격했습니다. 저자는 욕망이 하나님의 선한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여러모로 타락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경고합니다.

탐욕은 지속 불가능한 생태적 관행, 탐욕스러운 재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약자 억압,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성적 욕망은 관계를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폭력적으로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반드시 세상에 만연한 부패와 과멸을 초래하는 명백한 악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시간과 주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대피 경로를 따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평범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는 여전히 현장에서 쓸데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채 발견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욕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지극히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고, 저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도록 격려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풍성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거침없는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며, 이 세상의 타락이 아닌 하나님의 덕과 선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앞에 진정으로 갈망할 만한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우리의 갈망을 집중한다면, 갈망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혼란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과멸에 이르는 자기 주도성을 버리고,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내어줄 것입니다.

구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자체로 영원한 안식처로 순간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욕망으로 인해 세상에 만연한 부패에서 벗어나고자 헌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련해 주신 대피 경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자는 이 단락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대피 경로를 따라가면 우리는 1장 11절에서 읽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급에 은혜로운 반응을 보이도록 권면합니다. 저자가 5절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제시하신 약속들은 열렬하고 부지런한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바로 이 일, 즉 모든 인간 존재의 종말인 부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관하여, 하나님의 크고 귀한 약속,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누리는 여정을 향한 모든 열심을 다하십시오.

은인들을 기리는 비문들이 수혜자들이 은인을 기리기 위해 하기로 동의한 행동들을 서술하는 쪽으로 나아가듯이, 저자는 청중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와 약속들을 기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성한 은인께서 그들에게

배푸신 값비싼 투자를 기리기 위해 계속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쇠퇴하고 파멸에 처한 세상을 우리 뒤에 두고, 안전하고 영원한 항구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길, 탈출 계획, 대피 경로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너희는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에 경계 없는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속하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므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소리테스(sorites) 또는 절정(climax)이라고 알려진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화자는 일련의 개념들을 제시하는데, 각 개념은 그 연속에서 다음 개념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입니다.

이 장치는 특히 화자가 어떤 길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처럼,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 장치는 경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6장 17절 이하처럼, 어떤 길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훈에 대한 관심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구성하며, 지혜에 대한 사랑은 지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멸의 확신을 가져오며, 불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저자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기에 적합합니다. 믿음에 이르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대피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믿음 안에서 덕을 갖추십시오. 저자는 도덕적 탁월함이나 최고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레테'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윤리적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덕이 자라나는 가운데, 저자는 지식의 성장을 촉구합니다. 난해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독자들이 입문한, 그 신앙만큼이나 가치 있는 신앙에 대한 더욱 충만한 지식, 즉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경험적 지식과 그로 인한 유익이 어떤 대가보다 크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사람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욕망이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타락과 부패, 파멸의 주요 원천인, 중심이 되는 중요한 헌신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신자가 이 비행을 위한 에너지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유혹과 방해에 맞서 저항력을 유지하고, 자제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놀라운 문화적 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힘은 매일 자기 만족, 자기 방종, 자기중심적인 투자를 설교합니다.

인내를 넘어, 저자는 경건과 경건함을 함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심이 확고하다면 인내와

절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권속인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관계를 특징짓는 그리스어 '필라델피아'는 그리스-로마 윤리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상을 공유하고, 물질적 자원을 공유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조화를 유지하며, 잘못을 용서하는 데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양을 통해 이루신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로 삼으신 사람들을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저자는 제가 경계를 모르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아가페를 함양할 것을 권합니다. 이 사랑은 외적인 어떤 것도, 자연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친족 관계도 없이, 저자가 말하는 신적 본성을 마침내 공유하는 경지에 도달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따르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신적 본성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리스어 아가페에 내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이 덜 사용된 용어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속하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확신시킵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한 열매를 가꾸고 풍성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은 결코 믿음에 선택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눈이 멀어 과거의 죄를 씻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근시안이라는 이미지는, 어찌면 사용하기에 그다지 친절한 이미지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는 적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던 삶을 가꾸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의 능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닌, 우리가 종종 수동적인 오락과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산만함에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새벽녘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날, 흠 없이 드러나고 심지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모든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다른 친숙한 비유에서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와 노력의 대부분을 그날에는 중요하지 않을 일들에 쏟으라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극심한 근시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자는 더 큰 비난을 던집니다. 이 대피 경로를 따라 나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초에 치열하게 투자하신 것을 잊는

것이며, 과거의 죄를 씻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저자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는 것은 비참한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를 잊는 것을 경멸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대함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한 자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의 적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한 세기 후 세네카는 선물을 갚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한 번 준 선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남아 있어야 할 은사를 완전히 잊어버려 그 은사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듣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연관 짓고, 따라서 신뢰의 근거로 받는 값비싼 은혜임을 알면서도,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의미 있는 유일한 응답으로 그들을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은사는 애초에 그 깨끗해짐을 위해 제공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단락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히 하는 데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풍성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구원 개념과 우리가 머릿속에 품고 설교하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설교하는 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베드로후서 저자에게 구원은 단순히 고립된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피 경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결정은 중요하지만, 구원과 안전은 대피 경로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있기 때문에 대피 경로를 따르기로 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 경로는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열매를 맺을지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온전히 헌신하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존 웨슬리와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저자의 구원관을 크게 공유했습니다.

초기 감리교도들에게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도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도움, 즉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평생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구성원들은 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서로를 찾고 격려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목표로 삼으신 두 번째 안식을 추구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행동과 상호 작용을 이끄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이지,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라는 은혜롭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저자는 청중에게 은혜로운 응답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확실히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게으른 신학적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실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곧 의가 거하는 곳에 속한 자로 만듭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능력의 공급하심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데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모든 확신 교리의 가장 확실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분명 그 왕국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